

의료비 연말정산 헌법소원 청구 “환자 사생활·인권 침해 등 독소조항이다” / 치협 등 3개 단체 성명서 발표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

안성모 협회장은 12월 11일 오후 4시 장동의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소득세법 제16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소득세법 제166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 바,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특히 이 법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확하게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정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는 아울러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회원들과 미 제출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 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해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부 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우리 병의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 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는 사안이 예민한 만큼 헌법소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시적 비급여 ‘비급여’로 고시 1월 1일부터 시행… 광중합형 레진·GI 논란 종식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비급여로 고시돼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을 신설한다고 밝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종식됐다. 특히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수차례 급여로의 편입 위기를 겪었으나 정부에서 비급여로 고시함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치협은 그동안 광중합형레진과 GI와 관련 비급여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들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자연치아와 동일하게 색상 및 모양을 재현시키는 예술성이 필요한 행위임으로 법률상 비급여 대상(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며 ▲치아우식증 치료에는 대체 가능한 아말감, 자기중합레진 등이 존재하므로 보험급여 시는 충분한 재정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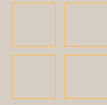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으로 한시적 비급여 기간만료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을 2006년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으며,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는 광중합형 레진과 GI, 초음파 영상 등 3개 항목만이 남아 있었다.

광중합형 레진과 GI는 2000년 6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제정으로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세차례 더 연장돼 2006년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2003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급여화하도록 개선 권고하는 안이 마련돼 한때 큰 위기를 맞았으며 지난 치협 집행부가 적극 나서 부당성을 호소 2006년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2004년 제53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어 대부분의 회원들은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전환되기를 원해 왔다.

또 12월에는 건처에서 비급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또 한번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치협의 주장대로 비급여로 결정됐다.



보수교육 강사자격 강화된다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안) 검토

보수교육의 강사 자격이 강화됐다. 치협은 12월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보수교육의 강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사의 자격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하면서 회원의 의무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협회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 명시했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3년 이상으로 개정했으며, 개원치과 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를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바꿔 경력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일일 최대점수제를 변경해 각 지부의 교육은 1일 6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4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면제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교육면제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내용 선정 중에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20%이내)를 치과와 관련된 교양 및 윤리강좌(20%이내)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자구 수정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치과대학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추가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황금돼지해 맞아 치과계 황금시대 열자” 치협, 신년교례회 ‘성료’

치협 신년교례회가 치과계 원로를 비롯한 유관단체 등 치과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5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정해년 새해 치과계의 발전을 축원했다.

이날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대신해 최근 교수신문에서 우수 교수들을 상대로 새해 한국사회의 소망을 담은 사자성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정책적 변화를 많이 겪으며 힘들었지만 올해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치과계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협회장은 사자성어와 관련, “교수들이 소망한 사자성어가 ▲반구자기(反求諸己)를 비롯해 ▲줄탁동기(卒啄同機) ▲대공무사(大公無私) ▲쾌도난마(快刀亂麻)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특히 ‘줄탁동기’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머니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의미로 회무와 관련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회무 추진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박중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근래 들어 정부당국의 의료 정책 변화가 심해 올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치과계도 회원간의 화합을 비롯한 대국민 신뢰회복, 정부보다 한 박자 빠른 정책 인프라 구축 등 꼼꼼하게 준비해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지난해는 특히 집행부 회무추진에 있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치과계에 희망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바란다”며 박수를 유도하기

도 했다.

이어진 각계 인사들의 덕담에서 지현택 고문은 “제게 온 환자 중에 35년전에 치료한 골드 인레이를 다시 치료하러 온 분이 있었다”며 “가슴과 표정에 항상 사랑을 지니고 성심성의껏 치료하면 골드 인레이가 35년 아니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본다. 풍성한 은혜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의학신인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은 “저는 ‘우리동네 행복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치과인 모두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덕담했다.

이어 김원우 원로와 이근세 전국구부장협의회 회장의 치과인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비는 건배의사가 있었으며, 참석자들도 정해년 한해 치과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지현택, 김정균 고문을 비롯해 박중수 대의원총회 의장, 김명득 전 대의원총회 의장,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 신영순 치정회장, 김영근 치기협 회장, 이경재 치재협 회장, 김원숙 치위협 부회장, 김종배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장영일 치병협 회장, 김경선 대여치 회장, 김명기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이근호 스마일복지재단 이사장, 박경준 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 회장, 김종철 서울치대 학장, 권영혁 경희치대 학장, 박영철 연세치대 학장, 채중규 연세치대 치과병원장, 김성욱 서울지부 회장 등 각 지부 회장, 장계봉 연세치대 동창회장 등 많은 치과계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